



파룬궁은 이미 세계 5 대 주에 널리 전해졌다. 해외 100여개 나라와 홍콩, 오문, 대만 곳곳에서 파룬궁 수련생이 민중들에게 파룬궁 진상을 똑똑히 밝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들은 “파룬대파” 가 쓰여 있는 노란 옷을 입었는데 마치 한 줄기 아름다운 풍경같이 삼회(중공 당원, 단원, 소련대조직 힐출)와 “파룬대파는 좋습니다” 는 아름다운 복음을 해외에 관광하러 온 매개 대륙 민중에게 전하고 있다.

하늘이 내린 홍복



- 몇 마디 말이 검찰관의 목숨을 구했다
- 혼탁한 세상의 뛰어난 의사
- 해상 생방송
- 여성 아나운서의 이야기

절망적인 상태는 결코 끝이 아니다

한 표류 탐험가가 표류 탐험 중 타고 있던 쪽배가 암초에 부딪혀 부서졌고 그는 파도에 밀려 한 외딴 섬으로 왔다. 그는 먼 곳을 지나는 모든 배들에 끊임없이 구조를 요청했으나 아무도 그의 외침을 들을 수 없었다. 그는 거의 절망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주린 배를 채우려고 또 바다로 물고기 잡으러 갔다. 돌 아오는 길에 앞쪽 멀리에 짙은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다——외딴 섬에서 그가 머물 수 있는 유일한 낡은 통나무집이 웬지 모르게 불길에 휩싸이고 있었다……그는 갑자기 울부짖었다: “하늘이시여! 나의 목숨을 살려준 것이, 저를 궁지에서 외롭게 죽이려고 그러시나요?” ……

굶주림과 피로로 그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정오쯤이 되었을 때 그는 기선의 모터 소리와 기적소리에 놀라 깨어났는데 배 한 척이 외딴 섬을 향해 오고 있었다. 그는 홍분되어 소리를 지르고 또 질렀다.

구조된 그는 참지 못하고 구조인에게 물었다. “누가 당신들에게 내가 여기에 있다고 알려주었나요?” “선생님, 당신이 아닌가요? 우리는 당신이 구조해 달라는 불길 신호를 보고 비로소 달려왔습니다.”

궁지에 빠졌을 때 왕왕 죽을 고비에서 살아날 수 있는 기연이 깃들어 있다. 왜냐하면 당신은 신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절망적인 상태는 결코 끝이 아니다. 



파룬궁을 듣고 인생이 전환

2004년 어느 날, 그녀는 먼 친척의 장례식에 갔는데 전기가 나타났다.

“죽은 사람과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우리의 경력은 비슷합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결혼 생활이 파탄 나서 두 아이는 할아버지 집으로 보내졌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평생 약을 먹었대요.” 티나는 “장례식이 열리는 날, 그녀의 아들은 멜버른으로 돌아와 식에 참석했어요. 그가 자애로운 빛을 온몸으로 발산해 주위의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고 말했다.

그날 티나는 그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자신이 오늘 편안한 마음 있게 된 것은 파룬궁을 수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파룬궁을 들었을 때 티나는 머리 위로 천 등이 치는 것처럼 느꼈다. 다음 날 그녀는 파룬궁 련공점을 찾아 5조 공법을 배우고 또 《전법륜(轉法輪)》책을 사서 매일 열독했다.

몇 주 후에 티나가 심리 진찰소에 가서 재검사했는데 의사의 그녀가 병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기에 깜짝 놀랐다. 그녀는 웃으면서 파룬궁을 만났다고 말했다. 의사의 그녀가 계속 련공하라고 고무해 주었다.

마음을 승화, 청춘을 되찾다

《전법륜》을 반복해서 읽으면서 티나는 자신의 결혼이 왜 실패했는지에 대해 점점 해답을 갖게 되었다. “옛날의 나는 이기적이며 항상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했는데 그렇게 하여 가족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러나 지금 나는 감사하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마음이 수련 중에 끊임없이 승화됨에 따라 나도 화기애애하게 변했어요.”라고 말했다. 티나의 청춘도 돌아왔다.

한 번, 그녀는 한 기자와 차를 몰고 나가 취재를 했는데, 그녀의 실제 나이를 알게 되자, 기자는 갑자기 큰길에서 급정거하며 놀라워했다. 그리고 한 번은, 누군가가 그녀의 피부를 만져보자고 하자, 그녀는 승낙했고, 그들은 어떻게 그녀의 피부 탄력이 이렇게 좋을 수 있는지 생각지도 못했다. 몇 번이고 화장을 안 했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십 대 소녀로 잘못 생각했다.

티나는 “한 번은 스웨덴 공항에서 세관을 넘으며 직원이 여권을 검사할 때 제 얼굴을 계속 쳐다본 후 그들은 스웨덴어로 의사소통을 하고 저를 의심스럽게 보고 있었어요. 몇 분 후에, 제가 물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그들은 나의 여권의 생일을 보면 이렇게 나이가 많은 것 같지 않다고 말했어요. 나는, 이건 아주 간단해요. 나는 파룬궁을 수련합니다.”고 말했다. 

티나는 “진선인” 수련을 통해 도덕을 승화하고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청춘을 유지하고 늙지 않는 다른 절반의 원인이라고 생각했다.



티나 작업 사진



여성 아나운서의 이야기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 대기실에 보안 검색 대기 중인 여행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다. 단정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미소를 지으며 여권을 꺼내자 공작 인원이 한 번 쳐다보더니 그녀를 한쪽으로 불러냈다. 그녀는 세관원들로부터 의심을 받았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문/ 엔란(嫣然)

이 젊고 예쁜 여자의 이름은 티나 고프스이다. 그녀는 호주 그리스 방송국의 한 여성 아나운서이다. 31번 프로그램과 Fox tel 케이블 TV 프로그램에서, 매주 그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녀는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멤버른 관객에게 소개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20대라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30대라고 하는데 아무도 그녀의 실제 나이를 알아맞힐 수 없다. 사실, 그녀는 50대이다. 티나를 잘 아는 사람들은 그녀가 젊어 보이는 것은 그녀가 가부좌를 좋아하기 때문이며 이는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부드러운 여성 아나운서는 이

것은 절반만 옳다고 생각했다. 그럼 나머지 절반의 원인은 무엇일까?

결혼 실패, 마음의 심한 타격

티나는 20년 전에 그녀의 첫 결혼 생활은 파탄이 났다고 말했다. 이혼할 때 그녀는 아직 아이가 있었다. 엄청난 스트레스와 고통 속에서 그녀의 정신이 붕괴하여 그녀는 병원에 입원했다. 몇 년 후, 한 훌륭한 남자가 그녀에게 청혼하여 그녀는 다시 한번 결혼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에 떨며 전단계 결혼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동안 종교와 최면술에서 탈피를 시도했지만, 답이 없었다.

CONTENTS

목록



인간 신적	1	유채꽃이 피었다
	2	대장장이의 새로운 삶
	3	몇 마디 말이 검찰관의 목숨을 구했다
	4	섬의 분쟁
죽을 고비에 서 살아나다	5	마른 나무에 꽃이 피다
길성이 높이 비치다	8	"위가 없는" 설계사의 새로운 삶
	10	고승에게서 생명을 구하는 귀중한 책을 받은 출가인
전 세계를 보다	13	파룬따파 흥전 세계 대성황
의사 마음	15	흔탁한 세상의 뛰어난 의사
구명 길언	18	핸들이 고장난 후
	19	"길언"이 온 가족 목숨을 구하다
장수의 집	21	마음
력사 환원	24	천안문은 "제일 큰 촬영장"
심신 정화	26	해상 생방송
	29	마음의 "처방"
청춘 묘법	31	여성 아나운서의 이야기

유채꽃이 피었다

문/칭란(晴藍)



남방의 봄날, 금빛 찬란한 유채꽃들이 산과 들을 물들였다. 산들바람이 스쳐 지나자 유채꽃이 춤을 추며 따뜻한 향기를 뿜리었다. 하지만 샤오위(小漁) 어머니의 마음은 북방 겨울의 얼음 구덩이에 빠진 듯했다……

샤오위가 중학교에 입학해서 설이 지나자 갑자기 온몸이 나른해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고, 소변의 색은 미음처럼 희었다.

샤오위의 어머니는 그를 데리고 크고 작은 병원에 다니며 진찰을 받았는데 소변검사에 뇨단백은 4개+가 나왔다. 결국 만성 사구체신염이라는 진단을 내렸다.

한 성 의학원의 교수에 따르면 만성 사구체신염이 발전하면 바로 뇨독증으로 돈을 얼마 써도 치료가 안 돼 수명을 징후시킬 수밖에 없다고 한다.

샤오위가 병에 걸린 후 어쩔 수 없이 휴학하고 집에 있었다. 샤오위의 어머니는 가슴이 미어져 사방으로 의사를 묻고 약을 구했다. 집에서 팔 수 있는 물건을 모두 팔아 결국 몇 챈의 놓기만 남았다.

그러나 샤오위의 병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아 하루하루 수척해졌다. 샤오위를 업고 어머니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른다. 하늘과 땅에 물었으나 대답이 없었고



그녀의 몸과 마음은 극도로 초조해졌다……

곤경에 처한 바로 그때, 그녀는 절망 속에서 우연히 파룬궁을 수련하는 의사를 만났다. 의사가 그녀에게 파룬따파는 고충차의 불법으로 진정한 수련자는 무한한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샤오위 어머니에게 《전법륜(转法轮)》(파룬궁의 주요 저작)책을 주면서 그녀더러 아이에게 보여주라고 했다.

샤오위는 보자마자 배우고 싶었고 《전법륜》을 열독하고 그는 파룬따파를 수련하겠다고 확고히 다짐했다.

그러자 파룬궁 사부님께서 샤오위의 몸을 정화해 주셨다. 그는 며칠 동안 마음 같은 소변을 대량으로 배출하고 나서 소변의 색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다시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각종 수치가 정상이었다. 의사は 놀라며 “신기합니다, 신기합니다, 현대의학은 설명 할 수 없어요!”라고 말했다.

만성 사구체신염은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서양의학 전문가는 단언했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샤오위는 건강할 뿐만 아니라 아득한 가정과 귀여운 아기가 있다.

해마다 봄이 오면 꽃이 피는데 샤오위의 마음도 고향의 유채꽃처럼 봄바람에 활짝 피어났다……

가서 책꽂이 속의 각양각색의 서적에서 자신이 간절히 바라던 답을 찾았다. 무심결에 그녀는 한 층의 책꽂이에서 색깔이 눈에 띄는 전단을 보았다. 그녀는 호기심에 꺼내 보았다. 아, 원래 동양의 가부장을 소개하는 파룬따파에 관한 전단이었다.

커다란 중문 세 글자 “진, 선, 인(真、善、忍)”과 아래의 영문 주제를 보았을 때 그녀는 가슴이 뜨끔하며 본능적으로 “찾았다. 이것이 내가 찾던 답이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순식간에 도서관을 떠났다.

그녀는 즉시 전단에 적힌 연락처에 따라 현지의 무보수로 파룬궁 공법을 가르치는 보도원에게 연락했다. 영문 《전법륜(转法轮)》

을 집에 가지고 와서 자세히 읽어본 후 그녀의 마음이 확 트이었다. 원래 병이 생기는 데는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 아니다!

바바라는 “책에서 말한 내용은 나의 모든 질문에 대답했어요. 이것이 바로 내가 찾던 삶의 해답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 같았어요.”라고 말했다.

마음의 “처방” 죽을 고비에서 구해준다

“진선인”을 지침으로 삼으며 바바라는 생명이 의지할 곳이 있게 되었다고 느꼈다. 그녀는 열심히 파룬따파 사부님께서 수련생에게 요구하신 “좋은 사람 중의 좋은 사람이 되다”는 표준으로 사물을 처리하였다. 오래지 않아 바바라는 그녀를 10년 넘게 괴롭혔던 홍반 낭창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수련하여 3개월 후, 그녀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녀는 몸이 제비처럼 가볍다고 느꼈고, 병이 없으면 몸이 가볍다는 미묘함을 체험했다.

건강을 되찾은 그녀도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유년기에 남긴 마음에 드

리워 있던 그림자도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지금까지 바바라가 파룬따파를 수련한 지 이미 19년이 넘었다. 그녀가 작은 전단 한 장 때문에 생명의 기적을 발견한 후부터 인연이 닿는 사람에게 전단을 보내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소원으로 되었다.



파룬따파 전단



인연이 닿는 사람들에게 전단을 전하고 있는 바바라

마음의 “처방”

문 / 뤄젠(若簡)



그녀는 온종일 약물에 의지해 힘들게 살면서 희망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그러나 마치 어둠 속에 배치한 듯이 그녀가 가장 가망이 없을 때 하늘이 무료 마음의 “처방”을 보내왔다.

불치병으로 삶의 의지를 잃었다

미국 미주리주에 사는 바바라 게이는 젊고 아름답다. 대학의 다채로운 생활에 그녀가 지금 막 소녀시대와는 색다른 삶이라고 느끼고 있을 때 재앙이 또 찾아왔다. 그녀는 전신 성홍반 낭창에 걸렸다.

홍반 낭창은 확진 후 수일 내에 사망하거나 약물에 평생 의존할 수 있는 의사들을 속수무책으로 괴롭히는 질환이다. 이것은 자가 면역체계의 불균형 질병으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기기 쉬우며 때로는 생명에 위협이 따른다. 환자도 비판하고 우울이라는 부정적 감정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다.

병에 걸린 후, 바바라는 련속적으로 열이 나고 전신이 허약하고 힘이 없어 10년간 이렇게 앓고 있었다. 바바라는 30세가 될 때까지도 제대로 일을 할 수 없어서 정부의 장애구조를 요청하는 수밖에 없었다. 장기간 스테로이드로 병을 통제하다 보니 맥관 염이 생겨 혈관이 파열됐다. “살아 있는” 것이

바바리에게는 힘든 임무가 되었다.

바바리는 어린 시절 폭력적인 어머니의 성향 때문에 공포에 질린 생활로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하게 되었다. 소녀시대에는 또 가정적인 변고에 번번이 시달리어 그녀는 우울함에 빠졌다. 바바리는 이제 마음에 남은 상처 외,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가혹한 현실에 직면하였다. 갑자기 생각을 떨쳐 버리지 못해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녀는 심리 의사에게 우울함에서 벗어나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하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바바리는 류머티즘 관절염 진단을 받았다. 이때 그녀는 더는 온종일 죽기를 기다리는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설령 죽더라도 방법을 강구해 알고 싶었다: 인생은 도대체 무엇 하러 있는가? 인생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신기한 전단 생명 의혹을 풀었다

2000년 2월 6일, 바바라는 지역 도서관에

대장장이 쑨용천(孙永千)은 온종일 쇠를 두드리고, 차를 수리하고, 타이어를 고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는 체격이 건강하고 안색이 회고도 불그레 하다. 사람들은 그가 이미 칠순이 넘었다고는 정말 알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가 병원에서 두 번이나 “사형”을 당한 사람이라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는가?

2013년 가을의 어느 날, 쑨 대장장이는 갑자기 몸이 불편하고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딸은 그를 대련시 푸란점 병원에 데려가 검사했는데 간부전 진단을 받고 즉시 입원했다. 한밤중에 점적 주사가 흐르지 않고 사람도 의식을 잃은 것을 발견했다. 의사의 당부에 따라 대련 제6 인민병원으로 옮겨 중환자실에서 꼬박 하루 응급 처치를 했다. 저녁 무렵 병원은 병이 위독하다는 통지를 내리고 가족들에게 후사를 준비하라고 했다.

다음날 오전 쑨 대장장이가 병원에서 차로 집에 왔다. 차에서 내릴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이 사람은 가망이 없다며 얼굴이 누렇고 흰 눈동자마저 노랗고, 배가 불룩해 사람 꼴이 없다고 말했다.

그가 의식을 조금 회복하였을 때 누군가 그에게 물었다. 지금 파룬따파만이 당신을 구원할 수 있어요. 파룬따파 사부님의 설법을 듣겠나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시간 남짓 들었을 때 몸에서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는 토향하고 설사하며 노란 쓸개 물을 반 대야를 토했다. 백성들의 말대로 하면 이것은

“창자를 청결 하는” 것이므로 낫지 않는다. 하지만 파룬따파 사부님께서 그의 몸을 정화하고 그의 몸의 병을 제거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찌 알겠는가!

다음날, 그는 약간의 힘이 생기자 사람의 부추김으로 벽에 기대어 앉을 수 있었다. 이때 어떤 사람은 이건 일어나 “망도(望道)”라는 것이니 좋은 일도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 이를 동안 관찰하였는데 사람은 확실히 호전되었다.

자녀들은 리훙쯔 사부님의 설법만 듣고 병이 낫겠는가, 죽을 무렵에 잠깐 정신이 맑아지는 것이라며 믿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지 사흘 만에 또 아버지를 대련 제6 병원으로 데려갔다. 보증금을 냈는데 의사들은 받지 않고 당신들 집에 만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목숨을 다시 살릴 수 없다고 말했다.

쑨 대장장이가 병원에서 두 번째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번에는 정말 선택 여지가 없었다! 집에 돌아온 후 그는 매일 리훙쯔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들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사부님의 말씀이 리치에 맞고, 들으면 들을수록 “진선인(真善忍)”이 좋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느덧 그의 몸은 나날이 회복되었다!

지금, 기사회생 후의 쑨 대장장이는 이전에 했던 일을 다시 시작했다. 땅뙈 الأرض 사람들은 또 그가 쇠를 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대장장이가 아직 살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대련 제6 병원의 원장은 감개하여 말했다. “정말 기적입니다!”



문
—
웨
밍
月
明





1999년 8월——중공이 파룬궁을 탄압하던 가장 무서운 시절이다.

어느 날, 모 검찰원의 당 지부에서 당원 대회를 열었다. 회의실은 다음과 같이 배치되었다. 정면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있고 주변에 큰 표어가 붙어 있었는데 모두 파룬궁을 모독하고 비판하는 것이었다. 회의장에는 촬영, 사진 찍으러 온 사람, 특별 기록하는 사람들로 심상치 않아 보였다. 회의가 시작하자 당원들은 저마다 긴장한 표정으로 신문에서 짜깁기하거나 베낀 발언문을 읽으며 자신의 “당성”과 “확고한 혁명성”을 표현하고 있었다.

“뜨거운” 발언이 막바지에 이르자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이 벽 구석에 앉아 잠을 자는 듯 안자는 듯, 아직 태도를 밝히지 않은 검찰관 루칭(路青)에게 눈을 돌렸다.

지부서기가 가볍게 그의 이름을 부르자 루칭은 천천히 눈을 뜨고 “모두다 읽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나는 신문도 제대로 보지 않아 무슨 준비가 없어요. 나는 모두가 분명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포도를 먹어 보지 않은 사람은 포도가 어떤 맛인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파룬궁을 련마하지 않았기에 파룬궁에 대해 조사가 없으므로 나는 파룬궁에 대해 함부로 평가할 자격이 없습니다!” 고 말하고는 다시 눈을 감았다.

잠시 멈췄다가 지부서기가 “끝났어요?”라고 물었더니 루칭은 “끝났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회의장은 온통 조용했다.

루칭의 짧은 몇 마디 말은 그 자리에서 남의 장단에 춤을 추던 동료들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모두 난처하여 얼굴을 미주 보며 각자 추측했다. 루칭이 왜 이러는 걸까?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루칭이 이처럼 지금 시대의 추세를 모르는가, 어떤 사람들은 그의 배짱에 탄복했다. 어떤 사람은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암 환자의 자포자기라는 주장도 있었다.

그렇다, 루칭은 말기 암으로 인해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안 되며 사람들은 모두 그의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후로 루칭의 몸은 오히려 빨리 회복되었다! 지금 거의 20년이 되는데도 그는 여전히 건강하게 살고 있다.

루칭이 오늘이 있게 된 것은 압력을 무릅쓰고 파룬파피를 위해 직언한 자에게 파룬파파가 복을 준 것이고, 정과 사 싸움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생명을 보호해 준 것이다.



원 대련 외항선 선장 쑨루초 최근 사진

나요?”라고 물었다. 메이단은 할 수 있어요, 뭐라도 감히 외칠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좋아요!” 쑨 선장은 “그러면 나를 따라 함께 ‘파룬파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칩니다.”고 말했다. 메이단은 진짜 따라 외쳤다. 그리고는 억지로 고통을 참으며 얼굴을 찡그리고는 “선장님, 이거, 이것은 아무 소용도 없잖아요?” 쑨루초는 “외치려면 진심으로 외쳐야 해요.”라고 말했다. 쑨루초는 사람을 불러 메이단을 들어서 그의 방으로 데려가 휴식하게 했다.

불과 5분이 지나자 메이단이 스스로 쑨루초의 방에 들어가자마자 큰 소리로 “선장님, 보세요, 저 나았어요.”라고 말했다. “정말?” 쑨루

초는 기뻐하며 말했다.

삽시간에 메이단이 “파룬파파는 좋습니다”를 읽고 신결석이 사라졌다라는 소식이 즉시 배 전체에 퍼졌다.

사람들은 쑨 선장에게 물었다. 왜 당신의 배가 항상 순풍에 뚫을 달았나요? 왜 탈당함과 아울러 “파룬파파는 좋습니다”고 외치면 생명을 보호할 수 있나요? 공산당은 신을 믿지 않고, 사람들에게 하늘과 싸우고 땅과 싸우는 것을 가르치기에 신은 중국 공산당 당도들을 보우하지 않는다고 그는 말했다. 리훙쯔 사부님께서 전해 나온 파룬파파는 최고 불법이므로 위험에 닥쳤을 때 당신이 시비를 명백히 기리고 사람의 마음이 선을 향한다면 신은 당신을 도울 수 있습니다.

중국을 떠나다

2010년 8월, 쑨루초는 아이의 유학을 따라 중국을 떠났다. 그때 그가 방송한 파룬파파 진상 및 “파룬파파는 좋습니다”의 복음이 영원히 원양 화물선에 남아 있고 선원들의 가슴에 남아 있을 것이다. 

탈당, 탈단, 탈대 성명 방법

- 진명, 가명, 애명으로 할 수 있다.
- 담을 넘어 탈당 사이트 <http://tuidang.epochtimes.com>에서 성명을 발표
- 해외전자 우편함으로 tuidang@epochtimes.com에 우편을 보내어 삼퇴를 성명
- 삼퇴전화: **001-888-892-8757 001-416-361-9895**
- 삼퇴팩스: **001-201-625-6301 001-510-372-0176**

삼퇴 전화가 통한 후, 가능하게 이것은 빈 번호이니 이 전화를 치지 말라는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이때 전화를 끊지 마세요, 아주 빨리 통할 수 있습니다.

돌파프로그램”을 얻는 방법

- 컴퓨터버전: <https://git.io/fgp> <https://git.io/umexe>
 - 안탁 버전: <https://git.io/fgma> <https://s3.amazonaws.com/693/um.apk>
- 주의사항: IE, Edge, Chrome 혹은 파이어폭스 등 브라우저 사용하세요.

아프지 않다니?” 그는 바로 다음 날 아내를 끌고 인근의 련공점에 가서 파룬궁을 배웠다.

오래지 않아 쑰루초의 두 눈과 몸이 모두 회복되었다. 그는 다시 레이더를 볼 수 있고 배에 올라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공구를 돌려보내다

어느 날, 쑰루초는 자기 집에 있는 많은 공구가 생각났다. 한 번은 유럽으로 배 미중 나갔을 때, 그가 배에서 손이 가는 대로 가져온 유럽 물건들인데 그는 공구를 배에 돌려보내 기로 마음먹었다.

“죄송합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기무 책임자에게 “이것은 내가 이등 항해사였을 때 배에서 집으로 가져간 좋은 공구들입니다. 지금 나는 파룬따파를 배워 ‘진선인’으로 자신을 요구함으로 이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돌려왔습니다.” 고 말했다.

그 당시 기무 책임자와 인사 책임자는 쑰루초를 명하니 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으나 속으로는 “이 배의 공구는 사람마다 가져가는데 어디 되돌려 오는 사람이 있는가?” 고 생각하며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은 너무 좋다고 느꼈다!

한 번은 선장이 회사 사장에게 그의 사정을 소개하면서 “우리 회사가 모두 쑰루초와 같다면 좋겠어요!”라고 말했다.

해상 생방송

1999년 4월 25일, 쑰루초는 선장에게 파룬궁에 공정한 말을 하려고 국무원 신방판공실에 가겠다며 휴가를 신청했다. 듣자마자 놀란 선장은 그에게 승낙하지 않았다.

상황을 반영하는 모든 경로가 막혀 있어 쑰루초는 배 위에서 공중과 채널을 리용해 진상을 말했다.



1998년 대부였을 때의 쑰루초와 아내 아들

2001년 설날 그믐날, 중국 공산당 장쩌민 집단이 천안문 “분신자살” 거짓 안건을 벌였다. 쑰루초는 마이크를 열고 바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분신자살은 가짜입니다! 우리 사부님께서는 ‘자살은 죄가 있다’고 책에서 명시했습니다.” 그는 또 일본과 홍콩 중문 방송에서 들은 “분신자살” 거짓 안건의 의문점을 분석한 것을 적시적으로 모두에게 방송했다.

인근 해역의 수많은 상선, 어선, 군용선, 공안선, 세관선이 모두 그의 방송을 듣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발해에서 황해로, 또 황해에서 남해로 전파했다.

영원히 순풍에 둑 단 배

2008년 11월, 쑰루초는 한국 P&F Marine 선사의 초빙을 받아 Mishima 배의 선장을 맡았다.

배에서 사람들은 쑰루초 선장의 배는 어느 방향으로든 순풍이라는 이상한 사실을 발견했다. 나중에 그들은 그 비밀을 발견했다.

한 번은 항행하면서 선박이 막 말라카 해협을 벗어나 인도양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아침 8시에 기관장이 쑰루초의 방으로 달려와 “선장님, 메이단(梅丹)이 힘들어합니다!”고 말했다. 메이단은 배의 구리 장인이다. 전날 밤에 갑자기 신장결석 증상이 나타나면서 오줌이 나오지 않아 바닥에 서뒹굴고 있었다.

쑨루초는 다급히 메이단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감히 나를 따라 몇 마디 말을 외칠 수 있



섬의 분쟁

문/탕완비(唐婉碧)

루이나(瑞娜)는 벼킨슨병을 앓고 있다. 그녀는 량손을 심하게 떨고 있어 밥을 먹을 때 밥이 입가에 닿지 않았는데 바닥에 떨어지고, 물건을 받을 때 손을 조금 흔들고서야 단단히 잡을 수 있었다.

얼마간 치료한 후 그녀의 증상은 결국 호전되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최근 생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자세히 물었다. 그녀는 나에게 그녀를 3년 동안 괴롭힌 지난 일을 이야기했다……

한 작은 섬에서 그녀는 남편과 선박 적재 함 운송 회사를 차렸다. 섬에 장사하러 온 사람은 적지 않지만 이곳에 사는 사람은 두 집뿐이다. 해변에서부터 그들의 집 별장까지 한 갈래 도로를 설치하고 두 집에서 함께 누리게 했다.

길을 수리하지 않아 그들은 이웃과 쌍방이 돈을 내서 길을 수리하자고 의논했다. 그러나 이웃의 반대로 그들은 혼자서 돈을 내는 수밖에 없었다. 일할 때 일꾼들이 길에 돌을 쏟아 놓아 이웃이 다니는 데 불편을 가져왔다. 상대방은 그들이 고의로 그런 줄 알고 그들이 집으로 통하는 지름길 문을 막아 놓았다. 화가 난 루이나의 남편은 아예 자기 집에 안치된 수돗물의 총 수문을 잠가 놓았다. 이웃은 물이 끊기자 화가 치밀어 길에 시멘트를 쏟고 돌을 쌓아 놓아 길은 완전히 막혀 버렸다. 이때부터 두 집은 불구 대천의 원수가 됐다.

이 분쟁으로 량 측 변호사 비용만 200만 원을 썼고 소송은 3년 가까이 계속되었으나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

이 과정을 서술할 때 루이나는 흥분되어 얼굴이 붉어지고 손이 끊임없이 떨리고 있었다. 정서는 거의 봉괴 직전에 이르렀다.

그녀의 고통을 보고 나는 그녀의 병은 약에 의지해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병의 근원부터 치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녀에게 “참는” 것을 말하며 그녀에게 “한발 물러나서 보면 세상이 넓어 보인다. 조금만 참으면 곤경 속에서 희망이 나타난다.”는 리치를 알려주었다. 이어 나는 그녀에게 또 “진(真)”과 “선(善)” 그리고 파룬따파를 알려주었다. 나는 또한 인과 윤회 응보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간단히 언급했다.

루이나는 처음으로 이런 것들을 들었다. 그녀는 “우리가 전생에 무슨 안 좋은 일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미안한 일을 하여 오늘 이런 보응을 받은 것이 아닌가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사람은 남을 위하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가 ‘진선인’과 너무 멀어서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긴 것이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루이나가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진선인”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순간 그녀의 손이 멀림을 멈추었다.

나는 알고 있다. 이것은 파룬따파가 만들어 낸 기적이다!



문 / 주디(朱迪)

나는 춤을 추는 것을 아주 좋아하여 꿈속에서도 춤을 추며 나울거렸다. 하지만 이제는 한 살배기처럼 걷는 법을 배워야 했고, 지팡이를 짚고 허리를 구부리고 있어 마치 늙은 할머니 같았다……

큰 재난이 닥쳐, 죽지 못해 살다

나의 이름은 주디(朱迪)이고 고향은 북경이다. 나는 생화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줄곧 과학 연구에 종사하고 있다.

40살이 되든 해, 생일이 지나자마자 나는 큰 병에 걸렸는데 이 엄청난 재앙은 나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

당시 나의 좌골신경 부위에 뭔가가 자라났는데 마치 계림의 산수처럼 아주 높이 자라 매우 아팠다. 북경 적수담 병원 골종양 과에 검사하러 갔더니 의사는 골 거 세포 종양 2도 암이라고 확진했는데 매우 위험했다.

얼마 되지 않아 의사는 나에게 수술을 진행했다. 수술은 힘들게 6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장골 전체를 잘라냈는데 수술 자리가 23cm 크기였고 수혈만 2500cc를 했다.

의사는 골 거 세포종양이 골반에 생긴 것은 매우 드물다며 보통 팔과 다리에 자란다고 했다. 다리뼈는 한 마디를 자르면 뼈가 재생하여 다시 이어지지만, 골반은 별집 모양이어서 잘라낸 후 더는 자라지 않는다.

그 후로 나는 죽지 못해서 살아 있었다……

덧없는 인생, 모든 의욕 상실

두 달 후, 나는 퇴원하고 집에 왔다. 허벅지뼈와 골반이 서로 맞붙은 쪽은 뼈가 하나 모자라 나는 절뚝거리며 지팡이를 짚고 다녔는데 그 아픔은 형용할 수 없었다.

더 끔찍한 것은 척추도 휘어져 신경을 압박해 나는 허리가 아팠는데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팠다. 그리고 전체 신진대사, 면역계통 등 모든 것에 변화가 생겼다. 나는 아주 빨리 주름이 생기고 얼굴이 검어지며 10살이나 더 먹은 듯이 노쇠해졌다. 그런 고통을 겪으며 정말 살기 싫은 나는 사람의 삶은 너무 고통스럽다고 느꼈다.

파룬궁을 수련, 마른 나무에 꽃이 피다

1999년에 나는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 위싱턴에서 나는 파룬궁을 접촉했다. 그때 미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었다.

어느 날, 서방인 친구 두 분이 중국어《전법륜(转法轮)》(파룬궁 주요 서적)을 나에게 주었다. 나는 지체없이 하룻밤 사이에 이 책을 다 읽었다.

《전법륜》이 책은 기공계에서 모르는 일부 현상을 모두 해설했고, 그리고 이 책 전체가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고, 높은 경지에



해상 생방송

문/천 자이위안(千載緣)

일만에 배에서 내렸다.

돌아온 후, 서의, 중의, 전문가 등 의사들을 다 찾아가 보았으나 병의 원인을 찾지 못했다.

당시 그는 눈이 밝아진다는 동물의 간을 거의 다 먹었지만, 여전히 오랫동안 물건을 볼 수 없었다. 나중에는 소리도 들을 수 없었고 몸은 점점 허약해졌다. 1996년 초 일등 항해사 시험을 치를 때 아내는 특별히 시험장 밖에 그에게 침대를 마련해 주었다. 왜냐하면 시험 마지막 순간에 침대에서 일어나 시험장에 들어가고 답안지를 다 내고 바로 침대에 누워 쉬어야 할 정도로 허약했기 때문이다.

두 눈이 회복된다

눈 깜짝할 사이에 1996년 8월 말이 되었다. 이날 아내는 책 한권을 가지고 와서 그에게

“당신이 이 책을 보실래요? 파룬궁 책인데 몸에 좋다고 해요.”라고 말했다. 그는 생각조차 하지 않고 “나는 기공에 관심이 없으니 안 보겠어요.”라고 말하자 아내가 “그럼 나는 련공할래요.”라고 말했다. 쑨루초는 아내를 보며 마음속으로 “아내는 사람이 너무 성실하기에 다른 사람에게 속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아내가 낮에 출근하였을 때 그는 아내를 위해 점검하려는 목적에서 몰래 《전법륜(转法轮)》을 보기 시작했다.

떠나지 않는 번뇌

쑨루초는 대련 사람이며 1987년에 대련 해사학원 중등 전문학교를 졸업했다. 고민은 그가 삼등 항해사였을 때 시작됐다. 그때 그는 레이더 스크린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는데 보기만 하면 눈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다.

한 번은 항행하였는데 그는 배에 오른지 3

이틀 후, 그는 책을 다 읽었는데 어쩐지 어디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다. 곰곰이 생각해 보고서야 문득 발견했다: “어떻게 나의 눈이

잘 타는 머리카락도 멀쩡하다.

어떤 사람은 일부러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 비닐 음료병에 휘발유를 채워 불을 붙인 후, 5초 사이에 병이 나른해지기 시작했고, 7초 사이에 수축 변형되고, 10초 사이에 작은 뾰루지로 수축하여 타버렸다. 왕진동의 두 다리 사이에 있는 비닐병사리는 특수재료로 만들었던 말인가?

화면은 사후의 “추가 촬영”이다

왕진동 “거짓 화상”의 허점에 “분신자살” 조작의 참여자이자 이 사건에서 시종일관 취재에 나섰던 여기자 리위창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2002년 초, 하북성 “법제 교육 양성센터” (사실상 파룬궁 수련생이 신앙을 포기하도록 펍박하는 세뇌반)에서 리위창이 불법 수감당한 파룬궁 수련생들과의 “좌담”에서 파룬궁 수련생이 그녀에게 “왕진동의 두 다리 사이에 있는 비닐 음료병이 왜 불에 타지 않는가?”고 질문했다. 그녀는 확실한 증거에 직면하자 어쩔 수 없이 음료병은 저희가 넣었는데 이 화면은 사후에 “추가 촬영” 한 것이라고 실토했다.

준비된 소화기

2001년 2월 16일, 《북경 석간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몸에 불은 불이 분신자마다 세네명의 경찰에 의해 진화되었다. 그럼 5명의 “분신자살” 자들에게 불을 끄려면 소화기가 몇 개 필요하겠는가? 누가 경찰이 소화기를 등에 지고 천안문 광장을 순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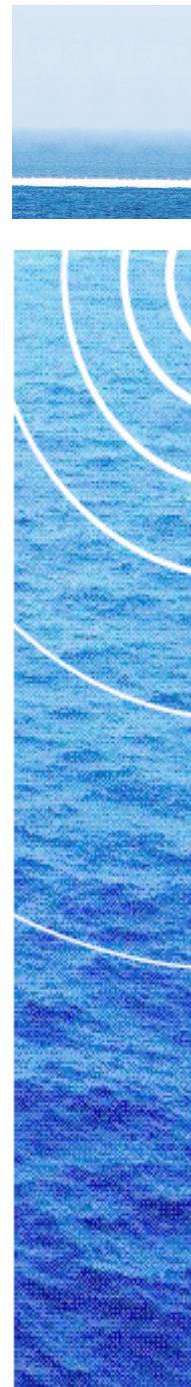
2004년 10월 16일, 호주 《시대 신문》(The Age)은 CCTV “분신자살” 녹상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경찰이 미처 몰랐다면 90초 만에 소방장비를 대량으로 들고 화면에 나타났다. 뚜렷한 것은 소화기는 준비되어 있었다!

2012년, 내부 사정을 잘 아는 래오닝 인사에 따르면: “제 친구는 ‘분신자살’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무장 경찰의 소대장이었어요. 그는 나에게 당시 그는 그 일의 ‘리허설’에 참여했다며 소화기를 들고 금수교 아래에 온종일 서 있었는데 꽁꽁 얼었다.”고 했다.

돌발 사건에 화면이 안정되고 또렷하다

“분신자살”은 돌발적인 사건인데, CCTV기자는 화면이 안정되고 또렷하게 촬영하였고 게다가 카메라가 사건을 따라 움직이면서 먼 거리와 가까운 거리, 특별 화면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 어불성설이 아닌가?

이런 많은 허점은 “천안문 분신자살” 안건이 중국 공산당 장쩌민 집단이 연출한 사기극임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연예계 인사는 우스갯소리로: 천안문은 “제일 큰 촬영장”이라고 했다.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했는데 내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귀와 눈이 번쩍 띄게 하는 것이므로 나는 이 책은 정말 천서(天书)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리홍쯔 사부님께서 친히 시연하신 5조 공법을 가르치는 사진으로 한 동작 한 동작 배우며 2세트를 배웠는데 어느새 날이 훤히 밝았다.

그날 서양인 친구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나는 그를 뵈러 병원으로 갔다. 집에서 병원까지 40여분 걸어야 하는데 그날 나는 걸음이 가쁜하고 몸이 아주 가벼워 30분도 안 돼서 병원까지 걸어갔으며 왔다 갔다 해도 힘들지 않아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공법은 너무 신기하다!

그때부터 《전법륜》이 책을 나는 내려놓을 수 없어 날마다 보았다. 책을 읽으면서 나는 몸의 차가운 것이 활활 몸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느꼈는데 두 다리를 통과하고 다시 발바닥을 거쳐 나가고 있었다…… 정말 미묘했다! 내가 수술을 받을 때의 그런 통증은 말로 형용할 방법이 없다. 지금 이런 아름다운 느낌 역시 나는 말로 형용할

방법이 없다.

주말에 나는 워싱턴 DC의 련공점을 찾아가서 그곳 파룬궁 수련생들과 함께 련공했다. 이때부터 나는 파룬따파 수련의 길에 들어섰다.

인간 기적, 장골이 재생

내가 파룬궁의 서적을 읽고 련공함에 따라 신비한 기적은 하나하나 나타났다. 나의 몸이 나아졌을 뿐만 아니라 3개월 동안 수련한 후 나는 왼쪽 엉덩이 부위의 근육이 자라기 시작해 저릿저릿한 것을 발견했다. 수술 이후로 이곳 근육은 이미 없어졌으나 지금은 근육이 서서히 자라나고 뼈도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때 나는 미국 워싱턴의 골과 전문의 팡위빈(庞玉滨) 의사를 찾아가 그에게 진단을 요청했다. 정말 뼈가 자라는 것이 아닌가요? 그는 한참 동안 매우 꼼꼼히 나를 눌러보고는 “당신 여기에 확실히 뼈가 있어요.”라고 말했다.

야, 나의 마음은 정말로 기뻤다. 이것은 원래 내 생에 가장 유감스러운 일이다—의



사들은 분골을 제거하면 더는 재생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지금 재생하였으니 이건 기적이 아닌가?

2001년에 나는 이미 50대였다. 나이들수록 골질은 점점 노화되고 푸석푸석하게 되지만 나는 새 뼈가 자라났다. 이것은 지금의 중의학, 지금의 서양의학에서는 도저

히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나는 마음이 밝고 정력은 30대, 40대 같이 왕성하다. 원래의 나는 검고 여위어 얼굴에 윤기가 없었다. 지금의 나는 피부가 하얗고 붉은 빛이 돈다. 친구들이 나를 만나면 모두 말한다. 당신은 어떻게 살면 살수록 더 젊어지나요!

전문가 인터뷰

주디 녀시의 신기한 재활 경력과 관련해 미국 최대회인 방송—신당인 TV 기자가 워싱턴 암 전문의 팡위빈(庞玉滨)씨를 특별 취재를 했다. 다음은 특별 취재의 일부 내용이다.

R: 주디 여사의 병이 시청자들에게 어떤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P: 그녀의 경력은 시청자뿐만 아니라 우리 의학계의 의사들에게도 계시하는 바가 됩니다. 무엇 때문인가? 서양 의학의 경우 환자가 종양이 생기면 의사는 환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든 상관없이 백방으로 이 종양을 전부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방사 치료, 화학치료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치료가 모두 다음에 암에 걸리는 원인입니다.

R: 화학요법이나 방사선 치료가 암 재발의 원인이 된다는 것인가요?

P: 재발을 막기 위한 화학치료는 독약이며 그 자체가 발암물질입니다. 4~5년 뒤 환자는 또 백혈병이나 다른 병에 걸리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가 화학요법을 한 결과입니다.

방사선요법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것은 방사선을 쓰기에 원자탄이 방사선을 폭발한 것처럼 그 방사선이 나온 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암으로 죽었습니까?

다행히도 주디 녀사는 이런 치료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 더 나은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파룬궁 수련의 길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한갈래 가장 좋은 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파룬궁은 전 세계에 추천할 가치가 있습니다.

R: 당신이 수련을 언급하여 원래 암 환자가 파룬궁을 수련한 후 약을 먹지 않고 나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의사가 된 지 여러 해 되었고, 나는 중의학과 수련은 가장 박대 정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의학과 비교하면 수련은 더 뛰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수련을 통해 경지를 높이면 몸 전체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래의 인류에 있어 수련은 주요한 방식으로 될 것이며 사람에게 심신의 혜택을 주는 주요한 방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신이 전한 문화이고 신이 인간에게 생존의 수첩을 준 것입니다.

▶ 환
원
력사

천안문은 "제일 큰 촬영장"

문 / 루쥔(如君)

2001년 1월 23일, 18년 전의 선달그룹 날에 천안문광장에 “분신자살”의 불길이 타올랐다. 중국 공산당은 5명의 파룬궁 수련생의 소행이란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CCTV《초점 방단》이 방송한 “분신자살” 녹상은 도리어 허점투성이이다. 어떤 사람은 조작의 단서를 TV 화면으로 간파한 것으로 드러났다.



500도 고온, 종처럼 앓아 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은 모두 휘발유가 타면 500도를 넘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500도의 뜨거운 휘발유 불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100도의 끓는 물에 손을 넣는다고 해도 “꼼짝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분신자살” 자 왕진동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끄떡없이 앓아 있을 수 있었다니 누가 믿겠는가? 어떤 시청자가 말했다. 요리할 때 뜨거운 기름이 팔뚝에 튕기면 뜨거워 펄쩍펄쩍 뛰었을 것이다. “분신자살” 이 진짜라면 왕진동은 벌써 천안문 광장에서 펄쩍펄쩍 뛰었을 것이다. 저리 가라, 영화를 찍어 백성들한테 보여주려는 것이다!

500도 고온, 비닐 병이 타지 않았다

이 녹상에서 “분신자살” 자 왕진동의 옷은 큰불에 “타서” 망 가졌지만 그의 두 다리 사이에 있는 비닐 음료병은 도리어 새것처럼 푸르고 가장

은 사람이 파룬궁을 수련하고 있었기에 오가와는 파룬궁은 아주 좋다고 여겼다. 하지만 그때 오가와는 배우고 싶지 않았다.

인간의 사유는 이렇게 기묘함으로써 어쩌면 인생에 모처럼 생긴 많은 복의 기회를 무심코 놓쳤을지 모르지만 기억에 남아 있었다. 벼랑 끝에서 아련하게 놓친 기회가 오히려 최고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오가와 씨는 박 씨를 찾아가 딸의 질병에 대해 말했다. 박 씨는 오가와 씨에게 “당신 딸의 병이 나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만약 당신이 파룬궁을 수련하면 당신의 인생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고 말했다.

오가와는 집에 돌아와 유미코에게 파룬궁의 소식을 말했다. 부부는 상의 끝에 딸과 아들을 데리고 함께 파룬궁을 수련하며 확고히 이 길에서 서로 손잡고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하늘이 내린 흥복 광명을 되찾다

오가와의 온 가족이 구마모토시 시라카와 공원의 파룬궁 련공점에 왔다.

그날 련공장에서는 모두가 단체로 련공을 하고 있었다. 오가와 씨를 놀랍게 한 것은 그동안 딸이 거의 울지 않았지만, 그날은 큰 소리로 울었다. 처음엔 딸이 젖을 먹고 싶어 하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야 비로소 파룬궁 련공장에 아주 강한 에너지가 있으며 리훙쯔 사부님께서 딸에게 몸을 조정해 주셨다는 것을 알았다.

파룬궁을 수련한 후 유미코는 인생에 대하여 문제에 대하여 모두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인생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차 있어 마

음도 즐거웠다. 그녀는 “파룬궁 수련은 ‘진선인(真善忍)’을 말합니다. 이 세 가지가 나의 매일 행동의 준칙이 되었어요. 어떤 갈등이 생겨도 자기 자신을 먼저 보고 자신의 원인을 찾는다면 상대방을 이해하기에 아주 쉬워요. 부부싸움도 농담으로 풀 수 있어 무엇이든 웃어 넘길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아내가 정말 변했다. 과거 매일 자책만 하던 아내가 파룬궁을 배워서부터 얼굴에 차츰 미소를 지으며 더욱더 어머니처럼 아이들을 대할 수 있게 됐다. 오가와는 매우 흐뭇했다.

바쁜 생활을 알차게 보내고 있었다. 여유 시간에 오가와 부부는 아이들을 데리고 리훙쯔 사부님의 설법 비디오를 보고, 주말에는 온 가족이 함께 련공점에 가서 단체 련공에 참가했다. 시간은 이렇게 저도 모르게 지나갔다.

문득 어느 날, 유미코는 의외로 딸의 눈이 조금씩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딸이 한 살 반일 때 건강검진을 했는데 의사 는 기뻐하며 말했다. 당신의 딸은 이미 문제가 없습니다.

“모자 수첩에는 건강과 이상 두 항목이 있는데 의사가 건강 항목에 동그라미를 치자 나는 그것은 파룬궁의 혜택을 입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 감동은 말로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는 오직 확고한 일념이 있을 뿐, 그것은 바로 파룬궁 수련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오가와 부부는 사람마다 인연이 다른데 우리 집은 딸의 병 때문에 온 가족이 파룬궁을 만날 수 있었고 딸 덕분에 온 가족이 파룬궁을 수련할 수 있었다고 했다. 

길성이 높이
비치다▶



땔나무같이 마른 “위가 없는” 로인은 음식을 먹지 못해 영양을 섭취 못 하므로 의사의 기껏해야 반년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평가했다. 그런데 13년이 지나도 그녀는 살수록 건강하다……

“위가 없는” 설계사의 새로운 삶

문 / 칭메이(清梅)

위 부인은 1955년 대학을 졸업한 후 줄곧 설계원에서 물, 전기 댐 설계를 하고 있었다. 1986년, 그녀는 캐나다로 이주한 후에도 설계원에서 본업을 했다. 그림을 그리려면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데 그녀는 또한 사용할 줄 몰랐다. “지고는 못 사는” 개성이 있는 그녀는 종종 밤새워 더듬으며 공부를 했다. 세 월이 흘러 그녀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세 가지 암에 걸려 위 전체를 절제

1992년에 위 부인은 가끔 어지러움과 피곤함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대변에 피가 나왔다. 그녀는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결장

암이 발견되었다. 의사의 조언으로 그녀는 수술했고 결장은 30cm를 잘라냈다.

결장을 절제한 후 액운이 연달아 닥칠 줄을 누구도 몰랐다. 1994년 결장암이 재발해 그녀는 결장 전부를 제거하는 수밖에 없었다. 생각지도 않게 1995년에 의외로 자궁암이 또 발생하여 그녀는 세 번째 수술했다. 장기간 위통에 시달려 피로하고 어지러움 등 증상이 잇따랐는데 1996년 그녀는 또 분문(贲門) 암에 걸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일련의 타격은 거의 위 부인을 붕괴시켰다! 의사의 “위 전체를 잘라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라고 말했다. 암세포 확산을

막기 위해 그녀는 위가 없으면 어떻게 밥을 먹을 것에 대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의사의 건의에 동의했다.

의사는 반년밖에 살 수 없다고 단언

수술 후 위 부인은 몹시 허약해 온종일 침대에 누워 있어야 했다. 위가 없으면 물도 마실 수 없는데 하물며 음식을 먹을 수 있겠는가?

매일 한 무리 의료진이 그녀를 돌보고 있지만, 고통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녀 누구도 분담할 수 없었다.

점차 의사는 그녀에게 혈소판과 철분을 보충하기 위해 액체 영양 품을 조금씩 먹였다. 며칠 지나자 만두를 먹을 수 있고 몇 모금의 묽은 죽밥을 먹을 수 있었으나 매번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녀의 머리는 땀투성이 되었다. 배가 고프기에 자꾸 먹고 싶지만 먹으면 배속이 천궁을 크게 들볶듯이 힘들었다. 정상적으로 영양을 섭취할 수 없어 그녀는 이미 매우 허약해졌다.

사는 것이 죽기보다 못했다! 이런 괴로운 삶을 그녀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았다! 의사は 그녀처럼 심각한 환자는 기껏해야 반년을 살지 못한다고 말했다.

파룬궁이 새로운 삶의 길을 열다

이제 곧 생명이 끝나게 되었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녀에게 희망이 찾아왔다. 위 부인이 위 절제 수술을 하기 전, 한 친구가 그녀에게 파룬궁을 소개해 주고 또 《전법륜(转法轮)》을 주면서 이것은 기이한 책이기에 읽고 나면

심신 건강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녀는 개의치 않고 책을 한쪽에 놓았다.

지금은 모든 희망이 다 깨졌다. 황홀한 가운데 그녀는 갑자기 이 책이 생각났다. 그녀는 책을 찾아내어 연거푸 두 번 읽었다. 읽으면서 그녀의 마음은 점점 맑아지고……그녀는 병에 걸린 원인을 알았고,

그녀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더 똑똑히 깨달았다.

후에 남편이 그녀를 부축하여 련공점에 갔다. 처음에는 그녀가 몇 걸음 걸으면 멈춰서 쉬어야 했고 련공도 잠시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매일 파

룬궁의 서적을 읽고 련공을 하는 것을 통해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어느새 그녀의 건강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다.

1년 후 파룬궁의 제2조 공법을 그녀는 원래 몇 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했다. 이 때 그녀는 이미 전혀 딴 사람으로 변했다. 원래 위가 없어 음식을 소화할 수 없으니 끼니마다 “새 모이”만큼 먹었던 그녀가 지금은 기회하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학적 리론으로 금기된 딱딱한 견과류를 먹을 수 있다. 🍂

“나는 지금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 있고, 또 묽은 밥과 마른 밥도 매일 서너끼 먹어요. 또 나는 단단한 것을 제일 좋아하기에 호두나 땅콩, 해바라기는 매일 꼭 먹어야 합니다.” 위 부인은 즐거워하며 말했다. “파룬따파가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었습니다!”

딸의 탄생을 기쁘게 맞이

오가와 일가족은 일본 키타크시마 구마모토시에 살고 있다.

남편 오가와 카즈히로(小川一博)는 돈독하고 소박한 회사원이고 아내 오가와 유미코는 예쁘고 부드러운 일본의 재래식 가정주부다.

아들이 3살 때 오가와 집에는 그토록 기다렸던 딸이 태어났다. 딸이 태어남으로써 온 가족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아들딸 한 쌍이 “좋다(好)”는 글자를 만들었다. 활달한 아들, 예쁜 딸을 바라보는 오가와 부부의 기분은 뿌듯했다.

하지만 딸이 5개월 되었을 때, 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은 큰 시련을 겪기 시작했다.

절망의 구렁이로 떨어져

하루는 딸이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 오가와 부부는 딸을 데리고 의사를 찾아갔다. 진찰을 받은 후 딸의 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의사가 말하기를 이 질병이 매우 심각할 수 있으니 빨리 아이를 데리고 대학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세요. 빨리 가세요!

진단서가 바로 나왔다: 선천성 뇌 질환으로 눈이 제대로 돌리지 않아 시력 능력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립체 시각 기능은 회복될 가능성성이 전혀 없었다.

이것은 그야말로 날벼락인데 오가와 부부는 놀라서 어리둥절했다. 딸이 앞으로 어떻게 살며 그녀의 긴 인생길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기망이 없는 슬픔으로 헤매다

유미코는 봉괴하여 매일 자신을 책망하였다: 자신이 임신하였을 때 뭔가 잘못해서, 먹

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어 딸을 이런 불치병에 걸리게 한 것이 아닌가?

의사는 아이의 두 눈이 모두 가운데로 모여 움직이지 않으니 오른쪽으로 보고 왼쪽으로 보는 눈동자 운동을 할 것을 권유했다. 유미코는 방울로 딸을 훈련했다. 하루하루 유미코는 이런 반복적인 동작을 하는데 매우 집중했으며 날마다 그러했다. 하지만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차츰 유미코의 정신은 지탱할 수 없게 되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이 머리를 들고 엄마를 쳐다보며 “엄마, 웃어봐요.”라고 말했다. 유미코는 그제야 문득 “아, 내가 오랫동안 웃지 않았구나.”제정신으로 돌아온 그녀는 갑자기 아들에게 매우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아들을 껴안았다. 겨우 세 살 남짓한 아들도 엄마의 보살핌이 필요했다. 하지만 딸의 병이 유미코의 마음을 찢어 놓아 그녀는 이미 웃을 수 없었다.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되어 뇌 불치병으로 앓고 있는 딸을 보면서, 날마다 흐느껴 울며 끊임없이 자책하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 오가와는 가망 없는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돼! 이러다 이 집은 끝장날 것이다!” 오가와 씨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강해지고 있었다.

생기를 찾다가 파룬궁이 생각났다

오가와 씨가 파멸에 직면한 가정을 구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쓰고 있을 때, 어느 날 그는 갑자기 그의 동료 박 씨가 생각났는데 박 씨는 파룬궁 수련생이었다.

몇 년 전 박 씨는 오가와에게 파룬궁을 소개한 적이 있다. 그는 박 씨가 말했던 많은 불치병 환자가 파룬궁을 수련한 후 건강을 회복한 사례들이 생각났다. 그때 일본에서 많



한국의 경상남도 밀양에 한 사원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다.

이른 아침 서광이 서서히 떠오르자 우렁찬 종소리와 목어를 두드리 는 소리와 함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이날 오전, 용모가 준수하고 옷차림이 세련되고 품위가 있는 한 젊 은이가 황급히 항불이 피어오르는 대전(大殿)으로 걸어왔다.

이 젊은이의 이름은 윤강원인데 그는 이곳의 고승을 찾아 미래를 점 치러 왔다. 그렇다면 그의 숙명은 어떠할까? 고승은 그에게 어떤 답변 을 하였을까?

고승에게서 생명을 구하는 귀중한 책을 받은 출가인

문 / 무즈구이(木子归)



사업의 저애, 절에 들어가 수행

윤강원(尹康元)은 젊었을 때부터 창업을 시도했으나 모든 창업 과정이 어려워 그는 락담하였다. 나중에 윤강원은 농업생산에 많은 돈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적자가 얼마 남지 않았다.

젊은 혈기가 왕성한 그는 패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 “다음번 창업의 령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밀양 사원으로 그곳의 법성 스님을 찾아가 미래를 점쳤다.

법성 스님은 그에게 “당신이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시다면 절쟁이를 찾아가세요.”라고 말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는 갑자기 수행을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 때 마침 친척이 대구에 공장을 차려 놓았 다. 하여 그는 낮에는 공장일을 하고 밤에는 스님을 따라 수행하였다.

이러한 생활이 3년을 계속되던 어느 날 불행한 일이 그에게 들이닥쳤다.

폐암에 걸려, 출가해 귀중한 책을 얻다

2007년 병원에서 폐암 판정을 받은 윤강원은 정말 청천벽력이었다.

그는 폐암 수술을 받았다. 폐가 일부 제거되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막혀 10m의 길도 도중에 휴식하지 않으면 매우 힘겨웠다. 병원 출입은 일상이었다.

“사업에서 리상적인 성적을 내지 못한 데다가 폐암까지 걸린 그때는 정말 삶에 더는 미련을 가질 만한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이것이 나의 숙명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슬프게 말했다.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윤강원은 바로 밀양 사원에 출가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른 사원의 철옹 스님이 《전법륜(转法轮)》이란 수련의 책을 읽고 있다는 말을 듣고 법성 스님에게 물었다. 그를 놀랍게 한 것은 법성 스님도 이 책을 보관하고 있다며 아울러 방에서 《전법륜》책을 꺼내어 그에게 넘겨주었다.

이때부터 윤강원은 파룬궁과 갈라놓을 수 없는 인연이 되었다.

파룬궁을 수련, 건강을 다시 회복

“책을 읽은 후 나는 깜짝 놀랐는데 이것은 정말 평범한 책이 아니었어요. 나는 전체 우주를 얻었어요.” 윤강원은 말했다.

사원에서 윤강원은 매일 《전법륜》을 공손히 읽었다.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 수련이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사원 생활을 끝내고 가정으로 돌아왔다.



파룬궁 제5조 공법을 련공하고 있는 윤강원

어느날 그는 집 근처에 있는 공원에서 한창 련공하고 있는 파룬궁 수련생을 만나 바로 그들과 함께하게 되었다.

2007년 1월 11일 이날은 얼음으로 뒤덮였다. 집을 나서려는 윤강원을 보며 가족들이 야외에서 련공을 하지 말라며 극구 말렸다. 폐암 환자에게 감기는 매우 무서운 병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날 그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의 공원 련공에 참여했다. 그는 그 것은 그가 태어난 이래 가장 추운 기억이라고 말했다. 놀랍게도 그는 감기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윤강원은 기뻐하며 “공원 련공에 참여하면서부터 나의 몸은 크게 변했었어요. 몸이 가벼워져 더는 숨이 가빠지지 않고 더는 폐암 환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건강을 회복한 것을 증명한 가족들은 파룬궁을 수련하는 나를 적극 지지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보통 50세가 되어가는 사람에게 축구는 상

이상한 것은 북경에서 돌아오는 길에 남동생의 다리는 심각하게 아프지 않았다.

집에 돌아온 후 남동생은 파룬궁 사부님의 설법 녹음을 가져다 들었다. 사부님의 설법을 듣는 과정에 그의 아픔은 서서히 가라앉았고 마음도 점점 평온해졌다.

어느 날 나는 남동생의 침대 옆에서 파룬궁의 5조 공법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는 갑자기 “누님이 거기서 련공하는데 나의 발가락이 쪄쏴(헬맥이 통하는 현상) 하네요.”라고 말했다. 나는 다급히 “일어나거나, 서 있을 수 있나 보렴?”이라고 말했다.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정말 서 있었는데 이전에는 그의 발이 땅에 닿을 수 없었다.

세 번째 날 나는 련공음악을 틀어 놓고 그에게 제 1조 공법 “佛展千手法(포잔첸서우파)”를 가르쳐주었는데 그는 10분간 서 있었다. 4일째 되는 날 나는 동생과 같이 40분 동안 련공했는데 그는 무게 중심을 두 발로 나누어 똑바로 설 수 있었다. 5일째, 1시간 동안의 동공을 다 했는데 남동생의 발밑에 있는 면 패드가 땀에 젖어있었다. 이것은 맥이 통하고 기혈이 통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련공하

여 10여 일 만에 남동생은 걸을 수 있게 되었고, 20여 일 후에는 거의 정상으로 걸어 다녔다.

동생의 다리가 좋아지는 동안, 어느 날 아침에 남동생의 아들과 며느리가 차를 몰다가 차사고가 났다. 그의 집 차는 앞부분이 부서졌고 상대방의 차는 뒤집혔지만, 가까스로 쌍방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남동생의 아들과 며느리는 이것은 그들이 항상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읽어 복을 받았다고 말했다.

남동생은 파룬따파가 그의 가족 3명의 목숨을 구해주었고, 그가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읽었기에 비로소 북경에서 돌아올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북경에서 죽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케는 파룬따파는 그들 집 4명의 생명을 구해주었다면서 그녀는 2017년 말, 한 차례 차 사고에서 상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들 온 가족은 진심으로 세인에게 알려주고 있다: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읽으면 목숨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확실합니다! 





동생의 다리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아팠는데 그 느낌은 은은하게 쑤시는 것이 아니라 큰 뎅어리로 가득 차 있었다. 고통스러운 그는 아들에게 다리를 자르겠으니 도끼를 가져오라고 소리쳤다.....

"길언"이 온 가족 목숨을 구했다

문 / 칭추(清秋)

2018년 2월 1일 선반 위에서 일하고 있던 동생은 다리가 끊시 아파 일을 할 수 없었다. 급히 현지 3급 병원에 가서 검사했는데 의사 는 칼륨 부족으로 생긴 것이라고 했다. 점점 주사로 칼륨을 보충한 후 조금 나아졌다.

그런데 2월 5일 아침, 남동생의 다리는 더 심하게 아팠다. 시 중심 병원의 검사에서 오른쪽 다리 혈관이 막혀 혈관을 뚫는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수술 과정에서야 원래 내린 진단이 오차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사실은 복부에서 오른쪽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혀 있었고, 원래 10mm였던 혈관이 91mm까지 팽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은 이 병이 너무 중하여 그들 병원은 치료할 수 없으니 성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

이 병에 대해 들어 본 적도 없는 온 가족들은 이 소식을 듣고 멍해졌다.

성 병원으로 옮겨서 일련의 검사를 한 후 의사들은 이런 병을 우리는 치료할 수 없기에 당신들은 복경으로 가라고 했다.

그들은 여러 곳을 거쳐 우리 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복경 혈관 전문 병원으로 갔다. 같은 일련의 검사 후, 의사들은 당신들은 또 병원을 옮기라고 했다. 남동생의 오른쪽 다리가 괴사가 생겨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데 그들 병원은 정형외과가 없기에 수술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게 동생 가족은 복경의 또 다른 종합병원으로 갔다. 의사들은 동생의 혈관 벽이 풍선처럼 잡아졌는데 이미 95mm까지 부어올라 언제든지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수술은 위험이 아주 크기에 수술대를 내려올 가능성이 희박하고 수술비는 40만원이 들었다.

40만이란 한 농촌 가정에는 천문학적인 숫자이다. 그들은 여기저기서 돈을 빌려 보았지만 충분히 모으지 못했는데 결국은 20여 만원이 모자랐다.

며칠 동안 분주히 뛰어다녔는데 동생의 다리는 점점 더 심해졌다. 어느 날 그는 아들에게 큰 소리로 다리를 자르겠으니 도끼를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병원에서 그에게 모르핀을 놓아야만 겨우 완화되었다. 그는 막다른 콜목에 다다랐다고 느꼈다. 그때 남동생은 갑자기 내가 그에게 알려준 위험할 때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읽으면 액운이 길상으로 변화한다는 말이 생각났다. 그는 마음속으로 묵념했는데 훨씬 좋아진 느낌이 들었다.

끊임없이 읽는 과정에 남동생의 마음에 희망이 생겼다. 남동생은 집에 돌아가 파룬따파를 배우겠다며 고집했다. 절망 속에서 다른 방법이 없고 수술비도 너무 많이 모자란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당히 힘든 일이다. 하지만 파룬궁을 수련한 후 49살인 윤강원은 회사에서 매주 열리는 축구대회에 1시간 동안 공을 차도 힘들지 않았다. 심지어 2008년부터 2009년에 호흡기에 불리한 중분진 경질 합금 공구 제조 업무에 종사할 때에도 무사했다.

자기 순정, 주위에서 혜택을 받다

윤강원은 세종시의 다양한 사회단체에서 참여도가 매우 활발하다. 그는 또 한 단체의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회장은 스님이다. 이 단체에 가입하여 1년 후, 스님은 그에게 “당신은 좀 남다르시네요,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나요?”라고 물었다. 윤강원은 그에게 파룬궁을 수련한 후의 체득을 소개하였다. 스님은 들으면서 “온몸의 세포들이 모두 즐거워하는 느낌이에요.”라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파룬궁을 수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윤강원은 현재 이 단체에서 이미 40여명의



윤강원 현재 사진

주류 인사들이 륙속 파룬따파 수련에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윤강원이 자주 참여했던 또 다른 단체는 1차에 고가의 술자리를 차리고 2차 때는 여성 접대부가 있는 고급 술집을 찾는 것이 관례였다.

모임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윤강원 뿐인데 회식 후엔 그는 고급 술집에 가지 않으려고 애쓴다. 세종시에서 명성이 높은 한 사람은 윤강원을 “술 못 먹는 놈”이라고 조롱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이 단체의 구성원들은 회식한 후 다시는 고급 술집으로 가지 않았고 회식까지도 점점 줄어들었다.

건강과 사업, 경사가 겹친다

파룬궁을 수련하고 “진선인(真善忍)”을 실천하였더니 윤강원의 인생을 되돌려 놓았다. 암이 완쾌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종시에서도 사람들의 신뢰와 존중을 받게되었다. 사람들은 “파룬궁을 수련하는 윤사장은 훌륭한 사람”이란 평가를 부여했다. 많은 사람들은 윤강원과 협력하니 신경 쓸 것 없이 머리를 쥐어 짜지 않으며, 그와 협력하니 너무 즐겁고 훌기분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신뢰감”이 그의 사업에 강력한 도움이 되었다. 9년 전 그가 세종시에 자신의 회사를 차렸는데 지금은 당초 기대했던 것의 수십 배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윤강원은 파룬따파를 수련할 수 있는 것은 자신 인생의 가장 행운이라고 생각했다.

“파룬궁은 나의 건강과 가족 및 사업 등 인생 모든 것에 새로운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는 “나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수련에 들어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믿습니다.”고 말했다. 



1



2



파룬궁은 또 파룬따파라고 하며 리훙쯔 선생이 1992년 5월에 전해 나온 불가 상승의 수련대법으로 “진, 선, 인(真, 善, 忍)”을 근본지도로 하여 5 조의 느리고 아름다운 공법 동작을 포함하고 있다.

파룬궁의 병을 제거하고 몸을 건강히 하는 유효률은 98%에 달하며 또한 마음의 평화로움과 평온함을 선사하여 세계 100여개 국가와 홍콩, 호주, 대만의 다양한 민족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매년, 세계 각국에서 열리는 다양한 축제 행사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파룬따파 성황 홍전세계



문 / 난쉬안(暖煖)

갑자기 앞에서 경적이 들리자 나는 급히 오른쪽으로 비키려 했는데 왠지 핸들이 순간에 고장 났어요. 차 안의 아내와 아이마저 “빨리 옆으로! 빨리 옆으로 비켜요!”라고 소리쳤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몇 번 밟았고 속도는 느려졌지만, 옆으로 비킬 수가 없었어요. 차는 점점 가까워졌고 나는 정말 초조했어요. 갑자기 당신이 나에게 위험이 닥쳤을 때 9글자를 읽으라고 하던 말이 떠올랐어요. 나는 목청을 돋우어 “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진선인은 좋습니다!”고 외쳤어요. 아직 다 외치지도 않았는데 순간적으로 핸들이 움직이면서 외부의 힘이 차를 옆으로 밀어서 안전하게 멈추는 느낌이 들었어요. 순간 트럭 두 대가 경적을 울리며 눈바람을 일으키며 우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정말 위험했어요! 나는 아내와 아이에게 “오늘 귀신에게 훔쳐 핸들이 고장 났어요. 파룬따파의 보우가 없었다면 우리는 끝장이니 정말 파룬따파 사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합니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멈춰서 길가에서 안정을 취하고 나서야 차를 시동해 당신의 집에 도착했어요.

이어 사촌 동생은 그들 일가가 위험을 겪은 경과를 말했다—

우리 랑동에는 눈이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터널을 지나자 땅에 흰 눈이 덮였고 게다가 내리막길이여 도저히 빨리 달릴 수가 없었어요. 산길은 또 구불구불해 맞은 편의 차가 가까이 오지 않으면 전혀 보이지 않고 또 감히 오른쪽으로 갈 수 없었는데 내려다보면 눈이 아찔했어요.

핸들이 고장난 후

백성의 좋은 의사

2014년 봄, 새로 개업한 사립 병원 원장은 여러 번 찾아와 연봉 20만 원으로 고 씨 의사 를 초빙할 뿐만 아니라 전 가족을 병원에 취직시키겠다고 했다. 고 씨 의사은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지금 병원에서는 모두 리익을 중시함으로 약값이 비싸 백성들이 병을 보기 힘든 이것은 사회적인 통폐입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 백성들을 해치는 일을 따라 해서는 안 됩니다. ‘진선인’에 어긋나는 일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자신의 장점을 리용하여 실제로 백성들의 고통을 해소해 주려고 합니다.” 고 말했다.

한번은 아주머니가 4살 된 어린 손녀를 데리고 치료받으러 왔는데 아이의 병은 수두 가 난 후 온몸이 가려운 증상이었다. 그녀들이 다른 병원에 갔더니 의사은 “독화공심(毒火攻心)”이니 그녀에게 빨리 점적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하루에 4개씩 련속 나흘을 맞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때 옆에 있던 한 여성이 아주머니에게 “고 씨 의사자를 찾아가세요. 그녀는 병을 봐도 사람을 속이지 않고 약값도 싸요.”라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어린 손녀를 데리고 고 씨 의사자를 찾아왔다. 고 씨 의사은 “수두가 나온 뒤 몸이 근질거리는 것은 정상이니 클로페니라민을 두 알 먹으면 나아요.” 당시 아주머니에게 클로페니라민을 4알 주었다. 아주머니가 “약값이 얼마인가요?”라고 묻자 의사은 “약 4알이 겨우 8푼밖에 되지 않아 돈을 낼 필요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이튿날 그녀가 또 왔는데 손녀가 약 두알을 먹고 나았다고 했다. 그녀는 격동되어 진료실에서 환자들에게 “파룬궁이 너무 좋아요! 파룬궁을 수련하는 의사가 너무 좋고 마음이 너무 바릅니다! 나는 돌아가서 꼭 파룬궁을 배우겠습니다!”고 말했다. 그럴 때마다 고 씨 의사은 여러분들과 말했다. “우리 사부님이 위대하고 파룬따파가 위대합니다!”

텔레비전 방송국에 응답

2010년 10월 고 씨 의사에게 련속으로 10여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모두 성 방송국의 농촌 프로의 진행자가 전화로 조사를 걸쳐 고 씨 의사가 본성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이며 그녀더러 간호사를 데리고 방송국에 가서 인터뷰하면 유명세를 치르고 금메달까지 안겨준다고 했다.

고 씨 의사은 단도직입적으로 “내가 이렇게 잘하고 표현이 돌출한 것은 내가 파룬따파를 배우고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고, 더욱 좋은 사람, 도덕이 고상한 사람이 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실을 말하는 것에 동의하면 취재에 응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지 않을 것입니다.”고 말했다.

오늘날 중국 대륙의 방송사는 모두 중공의 대변인으로서 많은 정의로운 기자들은 파룬따파의 아름다움을 정면으로 선전하고 싶지만 현실에서는 감히 할 수 없기에 취재는 허지부지됐다.

하지만 백성들 마음속에는 저울이 있다……



③ ④



⑤



⑥



⑦

1. 파룬궁 수련생 한국 서울 도심에서 펼친 성대한 시위행진
2. 파룬궁 수련생 캐나다 크리스마스 시위행진에 참가
3. 홍콩 파룬궁 수련생 신년 대행진 진행
4. 미국 시애틀 해양축제 촛불 행진 중 큰 법선
5. 파룬궁 수련생 대남 동녕 공원에서 단체로 《전법론》 열독
6. 파룬궁 수련생 독일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 앞 광장에서 단체 련공
7. 파룬궁 수련생 미국 국회 산에서 단체 련공

현성의 십리팔촌에서 위로는 정부 관리, 아래로는 평민에 이르기까지 늙으신데 젊으신데 모두 파룬따파를 수련하는 “고씨 의사”를 찾아가 진찰을 받는 것은 안심되고, 약값이 싸고, 병이 빨리 나으며, 사람을 속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끓임없이 찾아왔다……



고제 의사의 올해 67세로 동북의 한 평범한 현성에서 살고 있다. 그녀의 진료실에는 매일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20년이 넘도록 날마다 그러했다.

친절한 좋은 의사

고 씨 의사의 진찰 기술은 환자가 입만 열면 병세를 정확하게 밀할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나 그때마다 환자는 아주 놀라워했다.

진찰을 받는 동안 환자의 물음에 상관없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인내심을 가지고 해답을 했다. 때때로 한 가지 질문을 환자는 10번 이상 질문을 해도 그녀는 이제껏 짜증을 내지 않았다. 한 환자는 “다른 의사에게 한 마디만 더 물어보면 바로 반박당해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 씨 의사의 도리어 “나는 그러지 않아요. 나는 파룬따파를 수련하기에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들이 이렇게 멀리에서 한 번 오기가 쉽지 않은데 약을 쓰는 방법을 잘 묻지 않으면 집에 돌아가 약을 쓸 수가 없어요”

고 씨 의사의 20여년 동안 한 명의 환자도 괴롭히지 않고, 한 번도 선물을 받은 적이 없다. 그녀가 받은 의약 비는 가장 낮지만 치유률은 가장 높다. 환자들은 모두 “파룬궁을 수련하는 의사가 너무 좋아요! 우리는 병 보러 어디에도 가지 않고 당신 이곳으로 오겠어요.”라고 말했다.



건강 묘법

고 씨 의사의 병을 치료할 때 또 환자들에게 묘법을 가르쳐 주었다. 파룬궁을 수련하거나 진심으로 “9글자 길언” — “파룬따파는 좋습니다(法輪大法好)” “진선인은 좋습니다(真善忍好)”를 익게 한다. 환자들이 이것으로 건강을 얻었다. 이것은 현대 의학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다.

만성 신장염 환자가 있는데 뇨단백은 늘 3 (+)개 또는 그 이상이며 여러 큰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었다. 결혼한 지 5년이 되었는데 임신 후 출산이 임박하면 고혈압과 경련이 일어나 매우 위험함으로 분만을 촉진하는 방법으로 아이를 끌어 낼 수밖에 없지만 아기는 살 수 없었다. 환자는 두 번이나 이런 생사의 갈림길을 겪어 가족들은 매우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명성을 듣고 고 씨 의사의 진료소에 왔다. 고 씨 의사에게 “파룬따파만이 당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라고 말했다.

이 환자는 정말 파룬따파와 인연이 닿아 즉시 성심성의껏 배웠다. 4개월밖에 수련하지 않았는데 그녀는 몸이 가벼워지고 병도 없었다.

그리하여 그녀가 병원에 가서 화학 검사를 했다. 고 씨 의사에게 화학 검사를 보였더니 고 씨 의사의 “당신의 신염은 완전히 나았고 단백은 (+)가 하나도 없으니 당신은 안심하고 엄마가 되세요”고 말했다. 당시 환자는 기뻐서 울었다.

지금 그녀의 아이는 예닐곱 살이 되었다. 온 가족은 모두 파룬따파는 너무 신기하다며 그들 온 가족을 구해준 파룬따파에 감사드렸다.

한 당뇨병 환자는 고 씨 의사와 잘 아는 사이였다. 그녀는 고 씨 의사가 진찰 할 때 안경을 쓰지 않고도 아이에게 정확하게 두피 주시를 놓는 것을 보았는데 그 속도는 젊은 간호사보다 더 빠르고 깔끔했다. 그녀의 기억에 고 씨 의사의 눈이 고도로 근시였다. 지금 이 나이에 진찰을 할 때 안경을 쓸 필요가 없다니?

그녀는 고 씨 의사에게 눈은 어찌 그렇게 잘 보이느냐고 물었다. 고 씨 의사의 “나는 1996년부터 파룬따파를 수련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사오백도의 근시 안경을 걸지 않았어요. 20 여년간 몸이 아주 건강하고 정력이 충만해 약 한 알도 먹어본 적이 없고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지만 조금도 힘들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이 당뇨병 환자는 듣자마자 “파룬궁은 이렇게 좋으면 나도 배우고 싶어요. 나는 10년 넘게 당뇨병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없이 온몸이 편안하지 않아요.”라고 말했다.

그녀는 고 씨 의사에게 파룬따파의 서적과 리훙쯔 사부님의 공을 가르치는 CD를 사달라고 부탁했다. 몇 달 후의 어느 날 그녀는 즐거워하며 고 씨 의사에게 “나의 당뇨병이 철저히 나았어요. 화학 검사 결과 혈당, 당뇨 모든 것이 정상이 되었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진심으로 ‘파룬따파는 좋다’고 말합니다.”라고 말했다.